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13 국감 중간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틀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정부 비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새누리당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기재위 '빛더미 공화국'·공공기관 방만 경영 질타

국감 현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와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재정건전성 추궁=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올해 말 국가부채는 1천 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3% 규모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말의 571조2000억원보다 481조8000억원(84.3%)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영식 의원은 "가계부채가 980조원에 달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443조원에 이르는 등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빛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이 0.5% 감소하는 가운데 총지출은 4.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증세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금 당장은 증세를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지금 급증은 앞으로 증세가 필요할지, 또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어서 안 된다"면서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증세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후세에 짐을 떠넘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장률 과대 포장=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정부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에도 국제수입이 추경 대비 3.9% 증가하리라 예측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무책임한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정부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 객관적인 성장률 전망 자체가 불가하고 특히 집계에는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세입예산 작성 때 성장률의 일정 부분을 줄여서 반영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공기관 부채 질타=공공기관의 부채 누적과 방만 경영 문제에 대

한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가부채 증가세는 주로 공공기관 부채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말 249조3000억원에서 올해 말 520조3000억원으로 감절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MB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 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2008~2012년 LH공사의 부채 증가 규모는 52조원, 한국전력공사(자회사 포함)는 44조원, 가스공사 14조원에 달하는 등 14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의 부채 증가 규모는 76조원, 9개 에너지 공기업은 60조원,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은 14조원 선이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은행권 고위 임원 인사에서도 호남 확대" 강기정 의원

시중 은행 및 금융지주 회사 임원 인사에서도 광주와 전남 등 호남지역의 확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은행 7곳(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농협·기업은행)과 금융지주 6곳(국민·신한·하나·우리·산업·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 103명의 인선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남출신은 전체의 8.7%인 9명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이 34명(33.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경북 출신만 23명(22.3%)에 달해, 다른 공공기관

인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TK(대구·경북) 출신 집중이 나타났다. 호남 출신 임원의 수는 영남 출신 임원수의 4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



"출입국사무소 없는 무안공항 무늬만 국제공항" 이윤석 의원

무안국제공항이 출입국관리에 허점을 보이는 등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이 한 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개항했으나 이듬해 결맞지 않게 기초 인프라인 출입국관리사무소조차 없는

이해 출입국관리 업무는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비행스케줄에 따라 업무실행 최소인원인 6명씩 무안국제공항으로 출장와서 보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 1편당 입국심사에 승객 150명 기준으로 평균 45분 정도가 소요되며, 항공기가 연이어 도착할 경우에는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항공사와 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출입국관리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출장심사를 위해 매일 왕복 120Km를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전남 소방서 없는 시·군 10개...전국 최다" 백재현 의원

규정상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소방서를 설치해야 하지만, 전남지역 10개 시·군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소방재정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10개군, 경북 7개군, 전북 5개군 등 전국 시·군·구

46곳에 소방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는 모든 시·군·구에 소방서를 설치하게 돼 있다.

백 의원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전남지역 10개 군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 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재난 취약지역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이 느끼는 재난 취약도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예산확보를 통해 재난사각지대에 소방서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혜자 "세계수영선수권 정부 예산 반드시 지원돼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 갑)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 문체부에 의해 광주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정부 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문체부가 대회 유치 발표 직전 공문서위조와 검찰 고발을 언론에 흘림에 따라 마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정부 승인도 받지 않고 무분별한 세계대회 유치 표본처럼 국민에게 인식돼 광주 시민들의 명예가 심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당시 책임자였던 노태강 국립중앙박물관고고학연구소

연구원(당시 체육국장)을 상대로 "당시 감사를 했던 4월25일 즉각 고발하고 그때 조치했어야지 당시에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결론 내렸으면서도 유치결정 직전 공문서 위조로 몰아붙인 것은 광주의 대회 유치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 아니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단장은 "그때는 지자체들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대회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상황을 설명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문서 위조 때문이지 (광주시의) 유치능력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진통 문체부 장관은 유치 결정 시 5시간 앞두고 공문서 위조사실을 꼭 알려야 했냐는 박 최고위원의 지적에 "당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그 보도가 난 다음에 '유치가 결정된 다음에 (발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고 당시 자신의 견해를 소개했다.

/최권일기자 cki@

김한길 "사이버사령부 '덧글' 사법기관 수사해야"

민주당은 16일 작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덧글 작성 의혹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의 수사 착수를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내비쳤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10·30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화성 갑(甲) 오일 오후 사무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사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렸던 글 400건이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 지우기로 응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순천대서 '시민토크'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오후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정치 읽어 주는 남자, 박지원의 시민 토크'를 실시했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 2013년 시민학교 하반기 첫 강의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의 사회로 광주·전남 지역주민과 정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정상 "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 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조정 가능)
- ▶ 수 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직매 H.010-4667-93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